

한국화가 '전정 박항환' 화백 진도 운림산방에 미술관 개관

진도군에 130점 작품 무상 기증



진도 출신 한국화가 전정 박항환(71) 화백의 작품 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 개관식이 7일 오후 운림산방에서 열리고 있다.

진도군은 한국화가 전정 박항환(71) 화백의 작품 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이 최근 운림산방에 개관했다고 9일 밝혔다. 전정 미술관에는 박 화백이 18세 때 그린 초기 작품에서 최근 작품까

지, 그의 그림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작품 130점으로 구성됐으며, 작품들은 박 화백이 진도군에 무상 기증했다. 의신면 칠전리 출신인 박 화백은 남승 허건 선생과 도촌 신영복 선생

으로부터 사사 후 국전에 수차례 입·특선했으며, 국전 심사위원과 운영위원을 역임했다.

박 화백은 "진도 출신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른 작가들과 비교해 남부러울 것이 없고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며 "진도 출신 작가들이 수없이 많은데 운림산방 내에 옥산 백포, 금봉 선생에 이어 개인 미술관이 독자적으로 마련된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진도군에는 옥산미술관(2013년)과 백포미술관(2015년), 금봉미술관(2016년)에 이어 이번 전정미술관이 개관하면서 대한민국 민속문화예술 특구로서 위상을 강화하게 됐다.

운림산방에는 소치로부터 이어져 온 5대의 작품들과 제자들의 작품까지 전시하고 있다.

진도군은 진도 운림산방에 남도 전통미술관 제3전시관을 리모델링해 전정미술관을 마련했지만 향후 독자적인 미술관을 별도로 세울 예정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장흥군, 은어 20만미 방류 "탐진강서 다시 만나자"

탐진강·용산면 남상천서

장흥군은 지난 5일 장흥읍 탐진강과 용산면 남상천에 어린 은어 20만 마리를 풀었다고 밝혔다.

이날 은어 방류 행사에는 장흥 초등학교 학생, 용산면 청년회원, 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장흥군은 맑은 물과 푸른 숲이 어우러진 청정 장흥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은어 방류를 위해서는 그동안 탐진강 생태환경 보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광양시 소재 정수양어장 장성문 대표가 시가 5천만 원에 달하는 어린 은어 20만 마리를 기증했다.

장흥초등학교 학생 50명은 방류 행사에 참여해 수산자원의 중요성



과 고향사랑의 되새기는 배움의 시간을 가졌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탐진강에서 은어가 마음껏 뛰노는 모습을 곧

보게 될 것"이라며, "탐진강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의 농업, 시내와 같은 기초 생태계가 되살리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흥지역자활센터, 청년 자립 아이디어 '최우수상'

지역 청년 활용한 복지지원 사업

장흥지역자활센터(센터장 위수미)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 아이디어 공모'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 청년 대상으로 개인의 변화와 성장 중심의 맞춤형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다. 전국 26개 지역자활센터가 이번

공모에 참여했으며, 지난 5일 최우수 1, 우수 3, 장려 6개 센터를 시상했다. 장흥지역자활센터는 '청년자립과 복지안전망구축을 위한 청년SOS-복지지원 사업'을 주제로 공모에 참가해 전국 최우수에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청년자활근로 참여자를 통해 농촌지역 복지서비스 대상자들과 요양보호사의 안전 등 위

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낙후지역 대상자의 정기적 모니터링과 청년의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하는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중에 운영 할 계획이다.

위수미 장흥지역자활센터장은 "농촌 지역의 시급한 복지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청년인구 유출 방지 효과와 우리지역 청년층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세프 등 방음인들이 주관하는 스타푸드쇼, 예전 대회에서 출품한 요리시식과 지역 생산 가공제품 전시 판매 그리고 양파와 연 식혜, 샌드위치 등 시식행사도 함께 개최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요리대회를 통해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소재로 한 요리를 널리 보급하고, 대대로 내려온 지역의 오랜 전통의 손맛이 잘 보존됨은 물론 새로운 소독원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품격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무안요리경연대회 참가자 모집해요"

오는 13일까지 모집...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무안군은 2018년 무안연꽃축제 기간 중인 8월 11일에 개최되는 제 12회 황토골 무안요리경연대회에 참가할 대상자를 오는 13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황토골 무안요리경연대회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 내용은 무안의 특산물인 연, 양파, 고구마, 낙지, 밤호박 등을 주재료로 한 약선음식 1종과 향토음식 1종이다.

신청접수는 무안군 홈페이지(<http://www.muam.go.kr>)에서 참가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1-460-

4053) 방문 및 담당자 메일(yang88723@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요리경연대회는 1차 서류심사를 거쳐 현장경연으로 진행되며, 대상 1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최우수상 2팀은 전남도지사상, 그리고 우수상 4팀과 장려상 13팀에게는 무안군수상이 시상될 계획이다.

지역공급망 마케팅·정보지원팀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여수시, 이주여성 운전면허 필기시험 교실 합격률 67%

다문화지원센터서 시험 24명 응시 18명 합격



여수시의 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 필기시험 교실이 60%가 넘는 합격률을 보였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여수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치러진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24명의 이주

여성이 응시해 67%인 18명이 합격했다. 이날 시험은 전남면허시험장 감독관 2명의 감독 하에 치러졌다. 이주여성들은 먼저 감독관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은 후 자국어로

필기시험을 치렀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이주여성들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실과정에 등록하고 탈락자들은 재도전을 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한 달간 결혼이주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해 운전면허 필기시험 교실을 운영했다. 주 2회 도로교통 관련 법규와 문제풀이 수업이 진행됐다.

특히 시는 베트남어 등 11개 언어로 문제풀이 교육을 진행해 이주여성들의 이해를 도왔다. 필기시험도 이주여성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시 관계자는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능력개발과 취업,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는 이주여성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완도군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